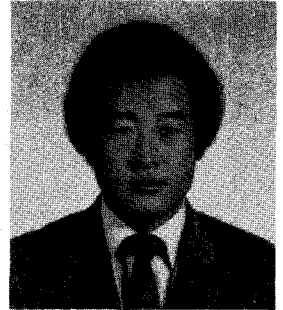


정책당국·협회·생산자 공동체의식 필연적



장 지 현
(농수축산신보 기자)

축협이 실시한 1/4분기 축산
결과 제란가격은 최근 관측
대란 10개당 5백60원의 시세가
이달말까지는 계속되다가 6~8
월에는 하락세, 9월이후 다소
상승세, 11~12월에는 약세가
될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육계값은 4월까지 비교적 강
세를 보이던 것이 이달부터 다
소 하락, 6월까지 지속된후 7-
8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됐고, 9월이후도 큰폭의 하
락세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관측결과를 놓고 볼때 가
격변동이 극히 상식적인 요인
들에 의해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봄·가을 행락철 수
요에 제란값이 상승하고 여름
철 伏수요에 육계값이 상승하
는가 하면 여름철 청과물의 수
요증대로 제란값이 하락한다는
등이다.

또 이같은 추세는 매년 반복되
고 있음도 보아왔다. 이제 우
리나라 축산업중에서 가장 먼
저 근대화의 길을 걸었던 양계
업계로서 이를 능히 이용할줄
아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

도 든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처럼 양
계산물의 가격이 안정돼가고
있지 않은것이 안타깝다. 생산비
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다가도
불과 몇개월만에 폭등, 경제당
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한다는 압
력을 받은 일이 언제 또 되풀
이 될지 불안한 것이다.

축산물 가격의 오르내림은 당
연한 것이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도 정
책당국이나 생산자 모두 인식하
고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
안한 상태에서 양계업을 영위해
가며, 당국은 제발 너무 오르거
나 내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
는 것이다.

당국이든 양계인들이건 양계
관련인 모두가 아는 너무 큰 가
격 진폭, 이를 완화해야겠다는
의지는 모두가 부족한 느낌이다.

양계산물이 국민영양에 기여
하는 바가 소·돼지고기 못지
않을진대 소·돼지값의 등락때
보다 정부당국의 관심은 너무
부족하고,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
회는 때마다 건의문을 제출하

는 것이다. 물론 양계인들은
아우성만 썼지 생산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항상 뒷전
이었다.

정부당국의 관심미흡, 협회
의 활동미약, 생산자들의 자율
적 노력부족이 악순환되는 가운데
양계산물의 가격은 제멋대로 춤
추는 것이다. 여기서 전근대적
인 유통구조와 생산요소의 불안
정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생산
비 증가부담은 양계산업 안정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몇가지 기본적
인 문제는 정부의 양계산업 안
정 의지에 의한 장기적 제도확
립, 유통구조 개선과 협회의 자
발적인 산업안정 유도, 그리고
생산자들의 전체를 생각하는 참
여의식과 주인의식이다.

당국의 문제로 지적할수 있
는 장기적 제도 확립과 유통구
조 개선에 대해선 현재까지 계
열화 생산체제, 체크업시스템,
계란GP 센터 설치 등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것이 논의된지
한두해가 된것도 아닌데 계란

GP 센타가 한냉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는 것외에는 아직 계획조차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그때그때 수매나 하는 정책으로 양계산물의 가격 안정을 바란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할 것이다.

유일한 생산자 단체인 협회는 어떤가. 매월 양계지(誌)를 발간하고 매일시세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보조로 계군형청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할 일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 협회조직이 있으나 그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이들 조직의 활동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말이다.

그러나 협회의 문제는 협회가 회원들의 참여로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협회의 이같은 활동은 이해가 간다. 근본적으로 생산자들의 주인정신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의 참여없는 협회의 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생산자 단체인만큼 생산자들로부터 나온 자금의 뒷받침이 없이는 협회의 존재가치마저 상실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콜레스

테롤」사건과 지난해 양돈협회가 보여준 돈육소비 홍보비 분담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양계협회는 홍보비가 없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키려해도 벽에 부딪혔고, 양돈협회는 당시 가격하락 예상등으로 돈육소비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비 분담을 하기로 결정했고 회원들은 이에 응해 꽤 많은 자금이 모아진 것이다.

이들 두 단체와 생산자들의 차이는 닭과 돼지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흔히 닭기르는 사람은 돼지 키우는 사람보다 생각이 얕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으나 그래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양계인들은 양돈인들보다 더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만큼 먼저 시작됐고 국민들의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은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가장 큰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양계산업의 안정은 양계인들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말하기

전에 통계조사에 정직하게 응하고 생산비 이하의 가격하락에 대비, 호황때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협회가 생산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자금을 뒷받침해주는 것 등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할 일들이 아닌가 싶다.

생산자들의 이같은 노력에 협회가 결코 안이해질 수 없으며, 정부당국이 한사코 무관심해질 수만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생산자들의 희생이 아니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가는 것이다. 더이상 산업의 불안정한 틈을 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양계인들이 발붙일 곳을 생산자 스스로 막는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양계산물 가격의 안정은 당국의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협회의 정책대안 개발,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귀결된다. 정책의 시행착오는 이해될 수 있으나 소신없는 무사안일은 산업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며, 양계업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지 못하고 투기의식에 젖어 있다면 양계산물 가격안정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 백사람을 괴롭힌다 한사람의 질서위반